

# 담 화 문

오곡백과 풍성한 민족의 고유 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여, 어려운 생활 여건이지만, 마음만이라도 풍성한 추석을 맞이 하시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조합은 지난 8월16日 조합비 인상에 대하여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조합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일부 조합원들과 일부 패널들이 이사장 선거 유세를 하는듯한 발언과 現 이사장에 대한 청문회 장처럼 발언하는 등으로 수준이하의 공청회가 진행됨에 대하여 공청회 주체자로서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다.

또한 일부 조합원들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진실을 왜곡하여, 이사장과 조합을 질책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조합원님과 진실을 알리기 위한 소통이 많이 부족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조합의 역사에 비추어 단 한 번도 공청회를 갖지 않았던 과거의 조합 운영에서 벗어나, 조합원님들과 소통하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다고 생각 합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지난달 16일 개최된 공청회 진행 과정과 공청회가 끝나고 일부 조합원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조합과 이사장을 폄하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진실을 알리고 진실을 바탕으로 조합발전을 도모하고자 진실이 왜곡된 내용을 사안별로 바로 잡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합비 인상에 관한 공청회 개최는 2017년도 결산 보고에서 조합비 고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감사님들의 지적사항에 따라 이사회 심의를 하여, 대의원 회의에 안건 상정 하였으며, 대의원회에서 조합원님들께 조합 운영상황을 알리는 홍보(서클 간담회, 공청회 등)를 한 후에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결의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비가 인상된 것처럼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있으나, 조합과 이사장은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절대 조합비를 인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조합비 운영의 제도적 모순을 조합원들께 알리고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재정 파탄을 막고 조합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이 집행부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조합비 운영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조합원님들이 납부하는 조합비 月12,000원은 조합운영비 8,000원  
복지비 4,000원으로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조합비 8,000원중 연합 회비 850  
원을 제외하고 7,150원으로 조합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운영 상 문  
제는 없으나, 지속적인 물가 인상과 現정부의 최저임금 상향 조정 정책으로 추후  
적자운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복지금 月4,000원은 조합원 애경사(결혼, 직계사망, 회갑등)에 5만원~10만원이 지  
출되고, 개인택시 양도 시 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직위로금은 지급 기준 근속 년수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10년 근속 시 약120만  
원, 20년 근속 시 약250만원, 30년 약380만원, 35년 약470만원(복지비 납부액 168  
만원) 지급하고 있어, 조합원님들이 납부한 금액의 약 3배의 이직위로금으로 지급  
되는 제도적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모순은 조합 집행부에 있었던 前이사장, 이사, 대의원들과 조합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며, 앞으로 현재 남아 있는 조합원  
님들이 사업면허를 양도하고 전별금(이직위로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것이며, 복지비 인상이 불가피 합니다.

**둘째,** 공제조합을 이사장이 운영을 잘못하여 부도냈다는 유언비어가 있어 진실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들게 사업하시는 조합원님들께 공제  
분담금 인상이라는 부담을 불가피하게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공제조합 운영은 조합원님들이 납부하는 공제 분담금으로 운영되고 있으  
며, 공제 분담금 지출은 조합원님들 사고 시 보상금과 보상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등)에 쓰여 집니다. 공제 조합 인천지부 운영 실태를 보면, 공제  
조합 인천지부는 전국개인택시 공제조합 본부에서 인사권과 예산권 등 운영주체  
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공제조합 본부의 예산권과 공제 약관 등 대부분은  
국토부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공제 분담금 인상은 안정적인 공제조합 운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결정으로 9년간  
분담금 인상이 없었다는 점과 사고율 증가로 전체보상금액이 증가 인건비 상승으로  
보상금액 증가, 물가상승으로 인한 대물 보상비 증가, 외제차 급증으로 인한 사고  
보상금액 증가등 이 주요 인상요인이 되었고, 사고 다발자(보험료 상한율 300%) 조  
합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상 증가와 최근 연이는 고액사고 또한 주요 인상  
요인이 되었습니다.

인천지부는 지난해 말까지 적자폭을 볼 때 25% 인상이 불가피하여, 공제본부에 보고했으며 공제본부가 국토부에 25% 인상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국토부가 18.7%만 인상을 승인하여 인상이 결정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인천 공제지부는 사고예방 활동과 공제 사고 현장 출동서비스(10月1日부터 지부장 출동)개시 등 조합원님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충전소 운영은 과거 집행부에서 충전소 보증금(5억원) 손실과 횡령(前소장 약2억3천만원) 적자 운영으로 인한 손실(특히 2014년~2015년 송00소장 재임 시 약1억8천만원)등으로 많은 손실을 보고 있었으나, 12대 집행부에서는 2017년부터 작지만 흑자로 전화되어 조합원님들께 작은 명절 선물을 지급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의 집행부 부실 운영을 現 집행부가 한 것처럼 왜곡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넷째, 일부조합원들이 조합 집행부가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닌다고 왜곡하고 있으나, 조합운영은 전에 어떤 집행부보다도 알뜰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밀비재했던 각종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을 現집행부는 제도권에 있는 정해진 회의인 이사, 대의원회의만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 후 결산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있고, 조합원 권익보호와 자질 향상을 위해 인천시 예산을 받아 조합원들에게 혜택(선진지 견학, 영종 조합원 통행료 보조, 이비·스마트 대표가맹점 카드수수료 대폭인하 및 영세가맹점 추진)을 주는 등 조합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한 사업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명아래 차량 공유를 내세워 카풀을 활성화 시키고 자가용 영업행위를 허용하고자, 획책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일부 조합원들이 문자 메시지나 카톡 등 SNS를 이용하여, 개인택시 사업 형태상, 조합과 조합원과의 소통이 힘든 점을 악용하고 각종 유언비어와 하위 사실을 유포하며 진실을 왜곡하며 조합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조합원님께서서는 허위 사실에 현혹되지 마시고,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카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8. 9. 18.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 승 일

